

현대 국어 말뭉치에 나타난 ‘-었는’의 사용 양상과 특징 연구

김 문 기*

1. 서론
2. ‘-었는’ 관련 자료 검토
3. ‘-었는’의 실현 양상과 특징
 - 1) ‘-은’으로만 교체 가능
 - 2) ‘-었던’으로만 교체 가능
 - 3) ‘-은’과 ‘-었던’으로 교체 가능
 - 4) ‘-는’과만 교체 가능
 - 5) ‘-는’과 ‘-었던’으로 교체 가능
 - 6) ‘-었는’의 유지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현대 국어 원시 문어와 구어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었는’의 사용 양상을 검토하여 그 쓰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현행 학교 문법이나 국어사전에 따르면, 관형사형 어미는 수식의 기능과 함께 시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인 ‘-는’과 과거의 ‘-었-’이 결합되는 것은 비문법적이다.

하지만 말뭉치 자료에서는 이들이 함께 쓰인 ‘-었는’의 용례들이 추출되는데, 이는 ‘-었는’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었는’이 실현된 용례들을 대상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강사(kimmg5058@hanmail.net)

으로 하여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의 교체 양상을 통해 그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었는’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① ‘-은’으로만 교체 가능, ② ‘-있던’으로만 교체 가능, ③ ‘-은’과 ‘-있던’으로 교체 가능, ④ ‘-는’으로 교체 가능, ⑤ ‘-는’과 ‘-있던’으로 교체 가능, ⑥ ‘-었는’ 유지 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었는’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현의 측면에서는 ‘-었는’은 과거의 완료된 사건에 대해 현재의 발화시로 그 시점을 옮겨 생생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강조나 추측, 직접적인 경험의 회상 등과 같은 양태적 의미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주요어: -었는, 교체 양상, 시제, 상, 양태

1. 서론

국어 문법에는 문장이 연결될 때 선행절이 뒤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 있다. 이때 실현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하 ‘관형사형 어미’)는 수식의 기능과 함께 시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말뭉치 자료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있-’이 결합된 ‘-었는’의 용례들이 보인다. 학교 문법이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등에 따르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과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결합 불가능하다.¹⁾

(1) ㄱ. 친구들은 몸이 건강해졌는 것 같다.

ㄴ. 꼭 지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는 사람은 말해 봐요!

ㄷ. 그래, 그 두 미녀가 ... 잠깐 나갔는 모양인데

1) 이러한 시제 형태소의 결합이 국어 문법과 어긋난 양상은, 최근 들어 많이 쓰이는 ‘-었어서’, ‘-졌어서’, ‘-있겠어서’ 등처럼 ‘-어서’에 시제 형태소들이 결합되어 쓰이는 경우에서 확인 가능하다.

- ㄹ. 왜 나쁜가 알았는 사람은 앉고, 모르는 사람은 서 있어라.
- ㄱ. 난들 살고 싶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는 줄 아냐.
- ㄴ. 오늘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 ㄷ. 조년의 악심은 조 눈썹과 목소리에 다 들었는 것이야.
- ㅇ. 지금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 그때가 그때쯤이었는 걸 상기할 수 있겠다는 말이다.

(1ㄱ)의 ‘-었는’은 ‘-은’, (1ㄴ)은 ‘-었던’의 쓰임에 해당한다. 그리고 (1ㄷ)은 ‘-은’과 ‘-었던’, (1ㄹ)은 ‘-는’, (1ㅇ)은 ‘-는’과 ‘-었던’의 쓰임에 해당된다. 하지만 (1ㄴ)의 ‘-었는’은 다른 관형사형 어미로 교체하면 어색해진다. 또한 (1ㄷ)은 ‘-어 있는’의 축약형인 ‘-었는’에 해당하며, (1ㅇ)은 인용 표현인 ‘-었다는’의 쓰임을 보인다.

관형사형 어미 ‘-는’과 ‘-었-’의 결합은 분명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말뭉치 자료에서는 ‘-었는’의 용례가 추출된다. 이는 ‘-었는’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2011 수정판)’의 현대 국어 원시 문어와 구어 말뭉치에서 추출된 ‘-었는’의 용례들을 통해 그 사용 양상과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2. ‘-었는’ 관련 자료 검토

여기에서는 국어사전과, 관련 논의를 통해 ‘-었는’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본다. 먼저 『표준』에서는 ‘-는’과 ‘-었-’의 의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

- (2) ㄱ. -는3 「어미」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겠-’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2) 『표준』에는 ‘-었는, -었은, -었을, -었겠는, -었겠은, -었겠을, -었었는, -었었은, -었었었’ 등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ㄴ. -었- 「어미」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어미.

관형사형 어미 ‘-는’은 (2ㄱ)에서처럼 통사적으로는 수식의 기능을, 의미적으로는 시제를 나타낸다. 이때 ‘-었-’과 ‘-는-’의 결합에 대한 문법 정보가 없으므로 ‘-었는’은 성립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었-’은 (2ㄴ)에서처럼 발화시 기준으로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과거’나 ‘완료’, ‘완료 지속’ 등의 상적 의미, 그리고 미래 사건에 대한 인식의 방식과 관련된 의미도 나타낸다.

김수태는 관형사형 어미와 시제 형태소의 결합 제약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통합체들을 ‘엇던, 겠던, 엇겠던, ?었는, ?겠는, ?엇겠는, 었을’로 제시하였다.³⁾ 더불어 김수태는 18세기 이후 ‘-었는’이 ‘-은’으로 대체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논의를 제시하였다.⁴⁾

안예리는 ‘-었는’의 사용 양상에 대해 통시적으로 접근하였다.⁵⁾ 이때 ‘-었

3) 김수태, 「관형사형 어미 ‘-는’에 대하여」, 『언어과학』 23-1, 한국언어과학회, 2016ㄱ, 33쪽.

4) 김수태,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의미와 불명확한 가장자리 현상」, 『언어과학』 23-3, 한국언어과학회, 2016ㄴ, 45~46쪽에서는 ‘-었는’이 말뭉치 자료에서 하나만 추출된다고 했지만, 현대 국어에서 과거의 관형사형 어미 ‘-은’ 대신 ‘-었는’이 사용되는 용례들이 300회 이상 추출되었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 ‘-었는’이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었-’과 ‘-는’의 결합을 문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5) 안예리, 「‘-었는’의 통시적 연구」, 『형태론』 15-2, 박이정, 2013, 172쪽에서는 “구스를 바깥는 腰褌이 便安하야 모매 맛도다 <초간두시언해 11, 17뒤>에서 ‘-어 잇-’의 ‘상태 지속’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구스를 바깥는’을 피동문이어야 하는데 능동문으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구슬을 바깥다’가 아닌 ‘구슬이 박혀 있다’로 풀이했지만, ‘구슬이’로 해석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구스를’처럼 ‘-를’을 목적격 조사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안예리, 앞의 논문, 174~176쪽에서 ‘상태 지속상’의 의미로 제시한 예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쓰인 용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바깥는’의 축약형인 ‘바깥는’은 ‘구슬을 박은, 구슬을 박아 놓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상적 의미와 시제 의미가 혼재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는’의 ‘-었-’을 ‘-어 잇-’의 변이형으로 파악하여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었-’이 ‘-어 잇-’의 상태 지속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현재 시제 ‘-는-’와의 결합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었는’의 ‘-었-’이 상태 지속상을 나타낸 예는 18세기에도 널리 나타난다 하였다. 즉, ‘-었-’은 상, ‘-는-’는 시제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문법 범주로 파악하여 이들의 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김태우는 ‘-었는’의 ‘-었-’이 본래 ‘결과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다가 ‘과거’의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파악했다.⁶⁾ 또한 ‘-었-’이 ‘-어 잇-’의 ‘잇-’에 있던 의미의 중심이 선행하는 서술어로 옮겨지면서 비완망상(imperfective)에서 완망상(perfective)으로, 그리고 과거 시제 요소로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상태’에 비중을 두던 구문 해석 방식이, 선행하는 사태의 ‘결과’에 더 비중을 두는 해석 방식으로 변한 것으로 파악했다.⁷⁾ 특히, ‘-었-’의 성립 이후 ‘-었는’과 ‘-었던’과 같은 새로운 어미가 등장했지만, 기존의 체계가 유지되었기에 ‘-었는’의 ‘-었-’이 관형절 시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었-’이 과거를 나타내는 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17~18세기의 예들을 제시하였다.⁸⁾

(3) ㄱ. 동환이 흥흥 먹엇는 줄 알고 변이 문드려 ... <서궁일고상:41a>

ㄴ. 너희 婦人 되엇는 이 시러곰 날 ㄴ트면 또 도흘이라 <五倫全備諺解 7:10b>

6) 김태우, 「‘-었는’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92, 국어학회, 2019, 164~165쪽에서는 ‘-었는’이 표준어가 아니므로 순수한 관형절에 ‘-었는’이 결합한 형식은 비문법적인 것으로 처리된다 했지만, 현대 국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된다 하였다. 한편, ‘순수한 관형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7) 김태우, 위의 논문, 166~173쪽에서는 ‘-어 잇-’을 ‘연속상(continuous aspect)’으로 파악한다면 비완망상인 [진행]과 결과상인 [결과 상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처럼 상반되는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사태의 서로 다른 국면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8) 김태우, 위의 논문, 174~175쪽에서는 15세기 자료에 보이는 정적 술어와 동적 술어에 결합한 ‘-었는’은 종결형이나 연결형과 동일하게 [상태 진행], [결과 상태의 지속], [진행] 등의 의미가 도출된다고 하였다.

- ㄷ. 제 병드려 죽었는 거슬 살형이란 말과 선왕의 약밥의 티독 하여
흥셔히시고 <서궁일기 상:18b>
ㄹ. 또 허망히 놀아서 죽었는 늙은이며 어린이와 ... <增修無冤錄諺解
1:8b-9a>

(3ㄱ, ㄴ)은 ‘결과 상태’⁹⁾ (3ㄷ, ㄹ)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3ㄱ, ㄴ)의 경우는 ‘결과 상태’로만 해석되기보다는¹⁰⁾ ‘완료’나 ‘과거’의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안예리는 근대 국어 용례에서 이동 동사와 결합한 ‘-었는’이 ‘상태 지속상’과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했다.¹¹⁾

- (4) ㄱ. 뉴청이 뽀뽀로 헤터 드러와 구멍이 왔는 줄을 니룬대 ... <낙선재 필사본 북송연의 5, 275>
ㄴ. 호연찬이 ... “왔는 도적은 었던 쟤다?” ... <낙선재 필사본 북송연의 1, 12>
ㄷ. 江東에 갔는 아을 보디 못하야 노푼 노래예 눈물 두어 주를 흘류라 <중간두시언해 11, 3뒤>
ㄹ. 원위 왕마와 사괴야 빅운산의 올나갔는 일을 니르고 ... <낙선재 필사본 후슈호던 12.18, 160>

(4ㄱ, ㄴ)은 ‘상태 지속상’을 나타내지만, (4ㄷ)은 발화 시점에서의 상황에 따라 ‘상태 지속상’뿐만 아니라 ‘과거’로도 해석 가능하며, (4ㄹ)은 ‘과거’¹²⁾를 나타낸다 했다. 그리고 안예리는 20세기 전반기 자료에서 ‘-었는’의 ‘-었-’이 ‘상태 지속상’과 함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용법도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이는 ‘-었는’의 분포 확대를 통해 증명된다 하였다.¹³⁾

9) (3ㄱ)의 해석을 ‘먹고 있는’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결과 상태’로 설명하였다.

10) ‘결과 상태’와 ‘완료’, ‘과거’의 구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11) 안예리, 앞의 논문, 175~176쪽.

12) ‘올라갔는’의 ‘-었-’은 앞뒤 문맥을 통해 볼 때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하였다. 즉, ‘올라가-’의 동작이 종결된 상태가 발화 시점에 더 이상 지속되고 있지 않으므로 ‘상태 지속상’이 아닌 ‘과거’ 시제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과거 시제’보다는 오히려 ‘완료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었는’을 ‘-었느-’와 ‘-은’의 통합체로서, ‘-었-(← ‘-어 잇-’: 상태 지속) + -느-(현재) + -(으/으)ㄴ(관형사형 어미)’으로 파악하였다. 즉, ‘-었-’은 상의 의미를, ‘-느-’는 시제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었는’의 의미 기능을 ‘상태 지속’이라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워진다. ‘상태 지속’의 의미를 ‘-었는’ 전체가 담당하는지 ‘-었-’이 담당하는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느-’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었느-’가 ‘상태 지속’의 의미라면 ‘-느-’의 의미는 무엇에 해당하는지 의문스럽다.¹⁴⁾

이에 비해 김태우는 ‘-었-’을 비완망상으로서 ‘결과 상태’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고, ‘-느-’는 동일한 비완망상인 ‘현재 비완망상’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므로 서로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¹⁵⁾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었는’이 쓰이지 않는 이유를 의미 충돌이 아닌 다른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한편, 김태우는 ‘-었는’에 ‘추측’의 화용론적 기능이 있음을 언급했다.¹⁶⁾ 곧 ‘-었느-’가 [추정·추론]의 구문¹⁷⁾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에 기대어, 청자가 화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성실하게 전달하기를 기대하거나 추측의 근거를 더함으로써 친근한 태도를 나타내며, 근거에 대한 확신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 ‘-었는’을 사용하여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인다는 것이다.¹⁸⁾

13) 안예리, 앞의 논문, 178~179쪽에서는 ‘-었는’의 선행 용언들의 특정 동작이 이루어지다가 일정한 기점을 기준으로 그 동작이 완료되고 그 결과가 상태로써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

14) 더구나 안예리, 위의 논문, 174~178쪽에서처럼 ‘-었-’과 ‘-느-’의 결합이 기원적으로 ‘-었-’이 ‘상태 지속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 형성된 것이라면, ‘-느-’의 의미 기능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게 된다.

15) 김태우, 앞의 논문, 178~179쪽.

16) 김태우, 위의 논문, 186~193쪽에서는 비완망상은 화자를 사건 내부에 위치시키는데, 추정 사태에 비완망상 ‘느’를 사용하여 해당 사태를 직접 관찰한 것처럼 표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였다.

17) ‘-은 모양이다’, ‘-은 것 같다’, ‘-은 듯하다’ 등과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18) 이처럼 ‘-었-’과 ‘-느-’의 쓰임에 유추되어 과거 사실의 기술을 현재인 것처럼 하여 [추정·추론] 구문에서 그 근거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청자에 대한 공감

본 논문에서는 현대 국어의 말뭉치 자료를 검토하여 ‘-었는’의 사용 양상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3. ‘-었는’의 실현 양상과 특징

여기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2011 수정판)의 원시 현대 문어와 구어 말뭉치를 자료로 삼아 ‘한마루 2.0’으로 ‘-었는’의 예문들을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었는’의 용례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⁹⁾

〈표 1〉 말뭉치에서 추출한 ‘-었는’의 용례

구분	-었는				합계
	본용언		보조 용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어	200	0.6711	26	0.650	226
구어	98	0.3289	14	0.350	112
합계	298	0.8817	40	0.1183	338

이러한 자료 추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문어와 구어에서 추출된 예문이 상당 부분 겹치는 양상을 보였으며, ② ‘-있었는’은 문어와 구어에 모두 있었다. 그리고 ③ ‘-하였는’과 ‘-했는’은 문어와 구어에 있는 반면, ‘-하였었는’, ‘-했었는’은 문어와 구어에 모두 없었으며, ④ ‘-어 있는’의 축약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었는’의 예도 있었다. 다만, ⑤ 관형사형 어미 ‘-는’과 ‘-었겠-’이 결합한 ‘-었겠는’은 추출되지 않았다.

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었는’의 기능을 전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곧 통시적으로는 상적 의미를 나타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양태적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이다.
19) 이때 ‘-어 있는’의 축약형으로서 ‘-었는’이 실현된 경우가 있었다. 본용언으로는 122개, 보조 용언으로는 55개로 177개가 추출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들은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문어와 구어 자료에서 '-있는'에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²⁰⁾

〈표 2〉 '-있는'과 결합한 선행 요소

순위	선행 요소	빈도	비율(%)	순위	선행 요소	빈도	비율(%)
1	하다	26	0.0769	67	경험하다	1	0.0029
2	있다	22	0.0650	67	고민하다	1	0.0029
3	있다(보조)	15	0.0444	67	공들이다	1	0.0029
4	없다	11	0.0325	67	그리다	1	0.0029
5	않다(보조)	9	0.0266	67	기다리다	1	0.0029
6	들다	9	0.0266	67	깨지다	1	0.0029
7	잡다	8	0.0236	67	꽃다	1	0.0029
8	만들다	6	0.0177	67	끝나다	1	0.0029
8	올다	6	0.0177	67	나가다	1	0.0029
8	죽다	6	0.0177	67	나다	1	0.0029
11	가다	5	0.0148	67	나오다	1	0.0029
11	놓다(보조)	5	0.0148	67	남다	1	0.0029
11	되다	5	0.0148	67	내려오다	1	0.0029
11	뛰라(고 하)다	5	0.0148	67	내다	1	0.0029
15	걷다	4	0.0118	67	늘다	1	0.0029
15	것이다	4	0.0118	67	당하다	1	0.0029
15	그러다	4	0.0118	67	당혹스럽다	1	0.0029
15	어떠하다	4	0.0118	67	대답하다	1	0.0029
15	맞다	4	0.0118	67	돌아가시다	1	0.0029
15	알다	4	0.0118	67	듣다	1	0.0029
15	읽다	4	0.0118	67	들어가다	1	0.0029
15	찾다	4	0.0118	67	들어오다	1	0.0029
15	팔아먹다	4	0.0118	67	만나다	1	0.0029
15	힘들다	4	0.0118	67	먹다	1	0.0029
25	남다	3	0.0177	67	먹다(보조)	1	0.0029
25	말하다	3	0.0177	67	메어지다	1	0.0029

20) 일반적으로는 구어와 문어 자료를 분리하여 제시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함께 제시하였다.

순위	선행 요소	빈도	비율(%)	순위	선행 요소	빈도	비율(%)
25	못하다(보조)	3	0.0177	67	명백하여지다	1	0.0029
25	받다	3	0.0177	67	모르다	1	0.0029
25	벌다	3	0.0177	67	무너지다	1	0.0029
25	생기다	3	0.0177	67	무섭다	1	0.0029
25	오다	3	0.0177	67	배우다	1	0.0029
32	건강해지다	2	0.0029	67	보이다	1	0.0029
32	나가다	2	0.0059	67	빠지다	1	0.0029
32	나다	2	0.0059	67	뻗치다	1	0.0029
32	놀라다	2	0.0059	67	사다	1	0.0029
32	달라지다	2	0.00592	67	살아오다	1	0.00029
32	되다	2	0.0059	67	상하다	1	0.0029
32	간주되다	2	0.0059	67	생각하다	1	0.0029
32	감추다	2	0.0059	67	싫다(보조)	1	0.0029
32	견디다	2	0.0059	67	썰다(썰이다)	1	0.0029
32	그때쯤이다	2	0.0059	67	아니다	1	0.0029
32	깨다(잠)	2	0.0059	67	아프다	1	0.0029
32	낱다	2	0.0059	67	안사랑채이다	1	0.0029
32	내놓다	2	0.0059	67	*안생기다 ²¹⁾	1	0.0029
32	넘다	2	0.0059	67	애타다	1	0.0029
32	넙다	2	0.0059	67	약속하다	1	0.0029
32	던지다	2	0.0059	67	*엮으러지다 ²²⁾	1	0.0029
32	돌다	2	0.0059	67	올라가다	1	0.0029
32	되다(보조)	2	0.0059	67	웃기다	1	0.0029
32	두다(보조)	2	0.0059	67	이어지다	1	0.0029
32	때문이다	2	0.00592	67	임신하다	1	0.0029
32	먹고살다	2	0.0059	67	잘하다	1	0.0029
32	먹다	2	0.0059	67	잡수다	1	0.0029
32	명(단위)이다	2	0.0059	67	저지르다	1	0.0029
32	무엇이다	2	0.0059	67	적용하다	1	0.0029
32	뭉다	2	0.0059	67	전보하다	1	0.0029

21) 문맥상 ‘못생기다’의 뜻으로 파악된다.

22) 문맥상 ‘엮어지다’의 뜻으로 파악된다.

순위	선행 요소	빈도	비율(%)	순위	선행 요소	빈도	비율(%)
32	믿다	2	0.0059	67	지키다	1	0.0029
32	보다	2	0.0059	67	찍다	1	0.0029
32	사용되다	2	0.0059	67	창작하다	1	0.0029
32	생기다(보조)	2	0.0059	67	취하다	1	0.0029
32	어찌하다	2	0.0059	67	타다	1	0.0029
32	옳다	2	0.0059	67	태우다	1	0.0029
32	이용하다	2	0.0059	67	패다	1	0.0029
32	전시뿐이다	2	0.0059	67	퍼내다	1	0.0029
32	접촉이다	2	0.0059	67	하다(보조)	1	0.0029
32	출연(出捐)되다	2	0.0059	67	합격하다	1	0.0029
67	가지다	1	0.0029	67	훑어가다	1	0.0029
67	가져오다	1	0.0029	67	휩싸이다	1	0.0029
67	감시하다	1	0.0029				

〈표 3〉 ‘-있는’의 후행 요소 실현 양상

순위	후행 요소	빈도	비율(%)	순위	후행 요소	빈도	비율(%)
1	것(의명)	108	0.3195	9	체(의명)	2	0.0059
2	줄/중(의명)	93	0.2751	9	한(명)	2	0.0059
3	데(의명)	58	0.1716	19	그	1	0.0029
4	듯(의명)	18	0.0533	19	분필	1	0.0029
5	모양(의명)	14	0.0414	19	사실	1	0.0029
6	사람	5	0.0148	19	시간	1	0.0029
7	반면	4	0.0118	19	연대	1	0.0029
8	말	3	0.0089	19	이때	1	0.0029
9	고로(부)	2	0.0059	19	작품론	1	0.0029
9	중	2	0.0059	19	점(의명)	1	0.0029
9	눈물	2	0.0059	19	종이	1	0.0029
9	눈치	2	0.0059	19	집	1	0.0029
9	만큼(의명)	2	0.0059	19	망각의 강	1	0.0029
9	불분명(∅)	2	0.0059	19	채선이의 꼴	1	0.0029
9	성(의명)	2	0.0059	19	한나라당 당원	1	0.0029
9	아이	2	0.0059				

〈표 2〉에서처럼 ‘-었는’에 앞에 실현된 용언은 모두 338개로,²³⁾ 본용언으로는 ‘하다, 있다, 되다, 없다, 뭐라(고 하)다’ 등이, 보조 용언으로는 ‘있다, 않다, 놓다, 못하다’ 등이 많이 쓰였다. 그리고 〈표 3〉에서처럼 ‘-었는’의 후행 요소로는 의존 명사 ‘것, 줄/중, 데, 듯, 모양’ 등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실현 양상은 후행 요소로 주로 추상적 의미의 의존 명사가 실현되므로 포괄적이거나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이 주로 결합되어 쓰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말뭉치에 나타난 ‘-었는’은 특정 관형사형 어미와의 교체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었는’의 의미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 교체된다는 점에서 ‘-었는’의 의미 기능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었는’과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의 교체 양상에 초점을 두어 그 의미 기능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의 교체 양상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나타났다. ① ‘-은’으로만 교체 가능, ② ‘-엇던’으로만 교체 가능, ③ ‘-은’과 ‘-엇던’으로 교체 가능, ④ ‘-는’으로 교체 가능, ⑤ ‘-는’과 ‘-엇던’으로 교체 가능, ⑥ ‘-었는’을 유지 가능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제 이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었는’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은’으로만 교체 가능

먼저 ‘-었는’을 관형사형 어미 ‘-은’으로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때 학교 문법에 따르면 ‘-었는’은 ‘과거’의 ‘-엇-’과 현재의 ‘-는’이 결합된 것이다.²⁴⁾

- (5) ㄱ. 당신이 죽었는 줄 알았나 부지요?
 ㄴ. 친구들은 몸이 건강해졌는 것 같다.
 ㄷ.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 줄 알어?

23) 문어에서는 121종 226개(본용언 200개, 보조 용언 26개), 구어에서는 61종 112개(본용언 98개, 보조 용언 14개)가 추출되었다.

24) 학교 문법에서 ‘-엇-’은 과거 시제로 파악하지만, 이론 문법에서는 ‘완료’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엇-’을 어느 쪽으로 보든 ‘-었는’의 의미 기능을 파악할 때 시제나 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 ㄹ. 나는 그 형이 이사 갔는 줄도 몰랐다.
- ㄴ. 시작 4시 49분 끝났는 시간 5시 10분.
- ㄷ. 나는 얼른 깨졌는 분필을 분필통에 집어넣고 ….
- ㅅ. 나는 애라가 깨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계속 잤다.
- ㅇ. 설사를 해서 눈이 움푹 들어갔는 데다가 잠도 못 자고….

(5)에서 ‘-었는’ 대신 ‘죽은’, ‘건강해진’, ‘기다린’, ‘간’, ‘끝난’, ‘깨진’, ‘깬’, ‘들은’, ‘들어간’ 등의 표현으로도 충분하지만 ‘-었는’이 사용된 것은, 분명 어떤 표현상의 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은, 해당 용언으로 표현되는 사건이 과거에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는’에 의도적으로 ‘-었-’을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관형사형 어미 ‘-는’이 나타내는 현재 시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는’의 현재 의미는 명제의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시점’과 관련된다. 즉, 명제 내용의 사건이 과거에 완료된 것이라도, 그것을 발화하는 시점인 현재로 시점을 이동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었는’으로 화자의 시점을 해당 사건을 발화시 현재로 이동하여, 사건에 대한 인식을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미래의 의미나 추측, 화자의 의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겠는’이 사용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듯하다.

- (6) ㄱ. 도대체가 물건 값을 못 쥘겠는 거야.
 ㄴ. 머리 아파 갖구 식당에 오래 못 앉아 있겠는 거야.
 ㄷ. 노인은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모양이었다.
 ㄹ. 이제 K는 견디지 못하겠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6ㄱ, ㄴ)은 과거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때로 돌아가서 그때를 현재로 파악하여 그 당시에 화자가 느낀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6ㄷ, ㄹ)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 문장의 ‘주체’가 느낀 바를, ‘화자’의 입장에서 추측하여 과거의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그때를 현재로 삼아 표현한 것으로 보

인다. 곧 문장의 ‘주체’인 ‘노인’과, ‘K’와 관련된 의지나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6ㄷ, ㄹ)의 경우, 문장의 주체는 분명 화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는 모양이다’, ‘-는 듯’ 구성으로 쓰였다. 그러므로 이 ‘추측’의 의미는 문장의 ‘주체’와 관련된 양태적 의미라기보다는, 사건에 대한 ‘화자’와 관련된 양태적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지’나 ‘의도’의 의미로 볼 수 있다.²⁵⁾

둘째, 관형사형 어미 ‘-는’의 시제 의미가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5)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문법정보다는 선행절의 사건이 과거에 완료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 즉, ‘-는’은 시제 표현의 기능이 약화되고 수식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²⁶⁾ 만약 ‘-는’의 현재 시제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5)에서처럼 ‘-는’에 ‘-었-’이 결합되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래 시제와 수식의 두 가지 의미 기능을 모두 담당하던 관형사형 어미 ‘-는’을, 시제 의미가 희석되면서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형태소로 문법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덧붙여, (5)의 ‘-었는’은 앞서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화자의 시점 이동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 ‘과거 사실이나 상황의 강조’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²⁷⁾

한편, ‘-ㄴ 줄 알다/모르다’ 구성에 쓰인 ‘-었는’도 ‘-은’으로 교체 가능하다.

(7) ㄱ.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ㄴ. 걱정을 얼마나 했는 줄 아니?

ㄷ. 너 오늘 장사 다 했는 줄 알아.

25)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6ㄷ, ㄹ)은 화자가 문장 주체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양태적 의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6ㄹ)의 경우에는 ‘이제 K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와 같은 인용 표현으로 교체할 수 있음을 볼 때, 본래 인용 표현이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

26) 이는 특히 (6)에서처럼 ‘-겠는’을 다른 관형사형 어미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듯하다.

27) 이는 ‘-는’의 시제 의미가 약화되면서 양태적 의미가 발현된다는 것으로, 김태우, 앞의 논문, 186~193쪽에서의 화용론적 의미와는 차이를 보인다.

- ㄹ. 돈을 냈는 줄 뻔히 알면서도 표를 샀냐고 묻는다.
- ㄱ. 문화촌 산꼭대기까지 물 길기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는 줄’의 구성은 ‘어떤 방법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앞 내용이 과거에 관한 것이면 동사에 ‘-은 줄’을 쓰고, ‘-는 줄 알다/모르다’ 구성은 각각 ‘-는 줄로 알다, -는 줄을 알다, -는 줄을 모르다’로 쓰기도 한다고 제시하였다.²⁸⁾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7ㄷ)뿐인 것으로 보인다.

2) ‘-었던’으로만 교체 가능

‘-었는’을 ‘-었던’으로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 (8) ㄱ. 이날 입때껏 난들 살고 싶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는 줄 아냐.
 - ㄴ. 꼭 지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는 사람은 말해 봐요!
 - ㄷ. 시골 양반을 비웃던 친구가 있었는 성싶은데 나도 함께 비웃었네.
 - ㄹ. 세일이 없었는 데다가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 ㅁ. 훈장계서는 어느 날 당시(唐詩) 몇 편을 뽑아 읽혔는데 시국이나 계절에 맞추려는 속셈도 있었는 줄 안다.
 - ㅂ. 변용진 씨의 ‘플래시’는 … 경마 팬들의 시선에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 듯 … 꼴찌가 돼 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8)에서 보듯이 주로 선행 요소로는 ‘있다’와 ‘없다’가 실현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었는’은 ‘완료’나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었던’²⁹⁾은 관형절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

28)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260~262쪽에서는 ‘알다, 모르다’와 함께 쓰여 ‘어떤 방법이나 사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9) 김태우, 앞의 논문, 190~192쪽에서 ‘-었던’은 ‘-던’과 함께 관형절에서 ‘과거’를 표현하는 요소로서, 그 과거는 과거의 행위가 현재로 이어지지 않는 ‘단절 과거’라 하였다. 이에 비해 관형절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은’은 현재와의 관련성에 대해 무관심한 가장 무표적인 과거형이며, 동시에 완망상적 요소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은’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던’의 의미를 살펴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⁰⁾

〈표 4〉 ‘-던’의 의미 기능

구분	『표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고려대)	『연세한국어사전』 (『연세』)
1	(‘-으시-’, ‘-었-’ 뒤 에 붙어) 앞말이 관 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냄.	‘-으시-’, ‘-었-’, ‘-겠-’의 뒤 에 붙어, 지난 일을 회상하는 뜻을 나타내면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 는 말.	㉠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회상 하는 뜻을 나타냄. ㉡ [‘-었던 것이다’의 꼴로 쓰이 어] 강조하여 표현함을 나타냄. ㉢ (회상의 의미 없이)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타냄.
2	(‘-으시-’, ‘-었-’ 뒤 에 붙어) 앞말이 관형 어 구실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이 과거에 완 료되지 않고 중단되 었다는 미완(未完) 의 의미를 나타냄.	‘-으시-’, ‘-었-’, ‘-겠-’의 뒤 에 붙어, 회상하는 뜻 없이 과 거의 사실을 나타내면서 뒤 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 능을 하는 말.	㉠ [주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에 붙어 과거의 어느 때로부터 계속 되어 지속되던 사실임을 나타냄. ㉡ 과거의 어느 때까지 그 동작 이 계속 진행됨을 나타냄. ㉢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그 일 이 반복되어 왔음을 나타냄.
3		주로 ‘-었던’, ‘-았었던’의 꼴 로 쓰여, 과거에 지속되던 행 동이나 상태 따위가 완결되 거나 중단됨을 나타내면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말.	[주로 ‘-었던’의 꼴로 쓰이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 이전 까지 계속되던 것이 완결됨을 나타냄. [주로 ‘-었던, -았었던’의 꼴로 쓰이어] 과거에 지속되던 행동 이나 상태 등이 중단됨을 나타 냄.(‘단속상’이라고도 함) ㉠ 어떤 행동이나 상태 등이 다 른 행동이나 상태로 바뀜. ㉡ 어떤 행동이나 상태 등이 다 른 행동이나 상태로 바뀌지는 않고 중단되기만 함.

30) 이때 ‘-었던’이 아니라 ‘-던’을 살펴보는 것은, 국어사전에 ‘-었던’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구분’에 제시된 숫자는 뜻풀이 번호에 해당된다.

결국 ‘-었던’은 『표준』에서는 ‘미완 중단’, 나머지 두 사전에서는 ‘완결, 중단, 바뀔’ 등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그 공통적인 의미 기능을 ‘완료’로 볼 수 있으므로,³¹⁾ ‘-었던’은 ‘중단’으로 인한 ‘완료’나 ‘완결’ 후 다른 행동이나 상태로의 ‘바뀔’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었던’의 의미적 중심은 ‘-던’보다는 ‘-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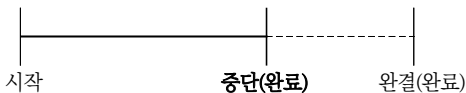
한편, ‘-었는’이 ‘완료’나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그 의미적 중심 역시 ‘-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1)의 ‘-었는’에서 과거 사건의 ‘완료’ 의미가 드러나지만, 단지 그 사건이 과거에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즉, 과거에 완료된 사건을 화자가 발화시 현재에 다시 떠올리면서 현장감 있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는’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³²⁾ 이는 사건시를 발화시 현재로 이끌어 오는 ‘시점의 이동’을 통해 해당 사건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었는’의 ‘-었-’은 ‘완료’, ‘-는’은 ‘발화시로의 시점 이동’을 나타내어 과거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강조하는 의미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는’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화자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었는’과 교체되는 ‘-었던’에서 ‘-던’을 ‘화자’가 직접 이미 겪은 경험이라는 점에서 화자와 관련된 양태적 의미로 파악한다면 ‘-었던’의 의미 기능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3) ‘-은’과 ‘-었던’으로 교체 가능

‘-었는’을 ‘-은’과 ‘-었던’으로 교체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³³⁾ 먼저 선행절의 사건에 대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은’으로 교체된다. 그리고 화자

31) ‘중단’이 어떤 과정을 지닌 사건이 완전히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사건의 과정에서 특정 구간까지는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 김태우, 앞의 논문. 187~192쪽에서는 ‘-었는’의 의미 기능을, 추측성 발언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더하고 이를 통해 친근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33) 『표준』에서는 ‘-었던’을 하나의 표제어로 설정하지 않았다.

가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회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었던’으로 교체된다.³⁴⁾

- (9) ㄱ. 눈길을 며칠 동안 걸었는 듯 짙신 감발에 ….
- ㄴ. 아마도 그 찬 바람 썰면서 … 감기가 들었는 게지.
- ㄷ. 제가 작은 방으루 옹기구 나서 … 너무 옹었는 거 같애요.
- ㄹ. 두 미녀가 … 나갔는 모양인데 조금 전까지도 있었어.
- ㅁ. 동양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하지 않았는 데 비해 서양 사람들은 …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 ㅂ. ‘합방’ 후 … 1인 평균 어획고도 조선인은 … 불과 5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는 데 반해 일본인은 … 50원이 증가했다.
- ㅅ. 이는 막전에 나타낼 수 없는 비공식 접촉이었는 데 비해, 이번에는 …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9)의 ‘-었는’은 ‘-은’과 ‘-었던’으로 교체할 수 있다. 특히, (9ㄱ~ㄹ)에서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에 대한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에서 쓰였으며, (9ㅁ~ㅅ)에서는 과거에 완료된 ‘기정사실’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이들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었는’에 ‘추측’이나 ‘기정사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사건에 대해 발화할 때 화자의 발화시로 시점을 옮겨서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에서 ‘-은’으로 교체하면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어 그것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므로, 과거의 기정사실을 객관적 전달의 의미가 보인다. 그런데 ‘-었던’으로 교체하면 과거 사건에 대한 화자의 직접적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어 과거의 기정사실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드러난다.

한편, ‘-었던’으로의 교체에서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즉, (10ㄱ)처럼 ‘-었던’으로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와, (10ㄴ)처럼 교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34) 선행 요소가 동사인 경우는 ‘-은’과 ‘-었던’으로, 형용사인 경우는 ‘-었던’으로 교체 가능하다.

- (10) ㄱ. 동양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하지 않았는 / 않았던 데 비해 서양 사람들은 ...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ㄴ. 젊음은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는 / *않았던 데 비해서 사람이란 ... 비루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선행절의 명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10ㄱ)의 선행절은 화자의 관점에 따른 판단을 보여 주므로 ‘-었던’으로 교체 가능한 반면, (10ㄴ)의 선행절은 ‘젊음’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을 나타내므로 ‘-었던’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는’과만 교체 가능

여기에서는 ‘-었는’을 ‘-는’으로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 (11) ㄱ. 왜 나쁜가 알았는 사람은 앓고, 모르는 사람은 ...
 ㄴ.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ㄷ. 나는 형이 늦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했는 줄 알고 다급하게 형을 흔들어 깨웠다.
 ㄹ. 어느 정도의 동물적 요구의 만족이 있는 연후에야, 능히 정신적 도덕적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 것이다.
 ㅁ. 학생들이 이러한 한 자리 강연으로써, 고만 그 강연자의 지식과 견해를 다 알았는 체한다면 ...

(11ㄱ)은 대등적으로 연결된 문장의 선행절에는 ‘알았는’, 후행절에는 ‘모르는’이 실현되어 시제가 서로 맞지 않다. 이는 선행절은 ‘이미 알고 있는’, 후행절은 ‘지금도 모르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1ㄴ)에서는 안은 문장의 시제가 현재인데 안긴 문장의 시제는 ‘-었는’으로 실현되어 있다. 이는 사건의 선후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자의 판단에서는 ‘세례’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세례를 ‘받은’ 것보

다는 ‘받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³⁵⁾ (11ㄷ)은 후행절의 사건이 과거로 실현되어 있어서 선행절도 과거로 실현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행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선행절은 현재인 ‘못하는’으로 교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ㄷ)은 일종의 진리나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관 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현재로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ㄱ)은 ‘-(으)ㄴ/는 체하다’ 구성으로 ‘추측’이나 ‘추정’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었는 체하다’는 어색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면 (11)은 (12)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 (12) ㄱ. 왜 나쁜가 아는 사람은 앓고, 모르는 사람은 서 있어라.
 ㄴ.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ㄷ. 나는 형이 늦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줄 알고 다급하게 형을 흔들어 깨웠다.
 ㄹ. 어느 정도의 동물적 요구의 만족이 있는 연후에야, 능히 정신적 도덕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ㅁ. 학생들이 이러한 한 자리 강연으로써, 고만 그 강연자의 지식과 견해를 다 아는 체한다면 ….

이처럼 사건의 선후 관계에 따르더라도 사건의 결과가 발화시 현재에까지 지속되거나³⁶⁾ 그것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의 것으로 본다면, ‘-는’으로의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발화시 현재의 시점으로 옮겨서 표현할 때에도 현재로 실현 가능하다. 이는 관형사형 어미에 시제 형태소를 실현하는 데에는

35) 이는 다음과 같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ㄱ. 문화촌 산꼭대기까지 물 걷기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ㄴ. 문화촌 산꼭대기까지 물 걷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ㄱ에서 ‘-었는’은 화자의 과거 개인적인 특수한 경험을 나타내는 반면, ㄴ의 ‘-는’은 그것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6) 김태우, 앞의 논문, 176~177쪽에서도 ‘-었는’이 ‘-는’으로 변화한 경우가 ‘앓-’에서만 나타나며, 이는 ‘-었는’의 [지속] 의미가 강함을 보여 준다 하였다.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화자가 어떤 사건을 표현할 때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개입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는’과 ‘-었던’으로 교체 가능

여기에서는 ‘-었는’을 ‘-는’이나 ‘-었던’으로 교체 가능한 경우들에 대해 살펴본다.

- (13) ㄱ. 정말 당혹스러웠는 게 애들이 다 사회 계열 논특 쓰고 나만 인문 계열 쓴 거야.
 ㄴ. 난들 살고 싶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는 줄 아냐.
 ㄷ. 구 한국 멸망의 책임은 순전히 구 한국민이 우리 겨레에 있었는 것이요, 결코 남에게 있었는 것이 아니다.
 ㄹ. 그 뒤 19세기 중엽까지는 7백 만을 상하하여 별 증가가 없었는 듯하다.
 ㅁ. 이는 막전에 나타낼 수 없는 비공식 접촉이었는 데 비해, ...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3ㄱ)은 안은 문장이 과거이기에 안긴 문장에도 ‘-었는’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법적으로는 ‘-은’이나 ‘-었던’으로 쓰여야 한다. 그럼에도 ‘-었는’을 사용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처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³⁷⁾

(13ㄴ~ㄹ)은 ‘있다’와 ‘없다’에, (13ㅁ)은 ‘체언+이다’ 구성에 ‘-었는’이 실현되어 있다. 이들도 현재를 나타내는 ‘-는, -ㄴ’이나 과거를 나타내는 ‘-었던’으로 교체하는 것이 문법적이다. 이때 (13ㄴ~ㄹ)은 문맥에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13ㅁ)은 주절이 현재 시제이다. 하지만 ‘접촉이었는’은 이보다 앞선 시간에서의 사건에 해당되므로 과거로 실현되

37) 이는 명제가 과거의 사건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었-’을 실현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과거의 ‘-있던’으로 교체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지만 발화시가 현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의 ‘-(이)ㄴ’으로도 교체 가능하다.

특히 (13)에서는 후행 요소가 의존 명사로 실현되었는데, 이때 수식어와 함께 후행 요소들이 하나의 덩어리 표현을 이루고 있다.³⁸⁾ 이 덩어리 표현에는 용언이 둘 이상 포함됨에 따라 시제 요소 역시 용언의 수에 따라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덩어리 표현 안의 용언과 덩어리 표현 전체의 용언에 모두 시제 요소가 결합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3)에서는 ‘-있는’이 실현된 종속절에는 사건시³⁹⁾가 실현되고, 주절에는 발화시가 실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제 요소가 실현될 수 있는 용언이 둘 이상일 경우에 안긴 문장에서는 주로 사건을 나타내므로 사건시를, 안은 문장에서는 발화시를 표현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화자의 판단 등을 나타내려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긴 문장에서의 ‘-있는’은 사건에 대해 화자나 주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된 시점으로 옮겨서 표현 가능하므로 현재의 ‘-는’으로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현장감과 생생함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건들은 모두 이미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있던’으로 교체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6) ‘-있는’의 유지

여기서는 ‘-있는’을 다른 관형사형 어미로 교체하기 곤란하여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38) (13)에서는 후행 요소로 의존 명사만 실현되어 있어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덩어리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안긴 문장으로서 의존 명사 ‘것’을 수식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속절과 주절에 시제 요소가 실현되는데,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동일하게 표현하기 위해 종속절에 ‘-있는’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9) 이때 사건시에는 ‘인식시’나 ‘인지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해 화자나 주체가 그것을 인지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화된다는 것이다.

(14) ㄱ. 오늘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ㄴ. 내가 이걸 얻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⁴⁰⁾

ㄷ.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니 할머니 이름이 뒀었는 줄 아냐?

(14)는 ‘-(으)ㄴ’, ‘-는’, ‘-었던’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색한 예들이다. (14 ㄱ)의 안은 문장의 시제는 현재인 ‘오늘’이며 안긴 문장의 사건은 그에 앞선 과거의 것임에도 ‘웃긴’이나 ‘웃겼던’으로의 교체는 분명 어색하다. 또한 (14 ㄴ, ㄷ)의 안긴 문장도 모두 과거의 사건이나 인식 등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었던’으로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은 줄 알다’에 ‘웃기다, 힘들다, 무엇이다’ 등의 용언이 실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용언들은 주로 화자의 감정이나 판단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건이나 대상 등에 대한 화자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 ㄱ)은 오늘 이미 있었던 사건에 대한 강조, (14 ㄴ)은 과거 화자의 노력에 대한 강조, (14 ㄷ)은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특정 정보에 대한 강조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었는’을 현재의 ‘-는’으로 교체하게 되면 이러한 과거의 사건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또한 ‘-었는’을 ‘-었던’으로 교체하게 되면, ‘-던’의 의미 기능에 해당하는 ‘미완’이라는 의미와 상충하게 된다.

이처럼 (14)와 같은 경우에는 ‘-었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교 문법이나 국어사전에 따르면 관형사형 어미 ‘-는’에 ‘-었-’이 결합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 ‘-었는’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관형사형 어미로 교체가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통해 ‘-었는’을 시제의 관점에서 파악했던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이 예문과 (13 ㄴ)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13 ㄴ)에서는 화자에게 살고 싶은 날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었던’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14 ㄴ)은 화자가 그 당시에 힘들었던 경험보다는 그때 이미 힘든 상태였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4. 결론

본래 ‘-었는’의 ‘-었-’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며, ‘-는’은 ‘현재 시제’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문제는 이들은 함께 결합하여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제 발화나 방송의 자막 등에서 이들을 결합하여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었-’과 ‘-는’의 결합이 문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결합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었-’과 ‘-는’의 문법 범주적 특징에 주목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오히려 이들이 결합한 ‘-었는’이 실제 언어생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대 국어 말뭉치에 나타난 ‘-었는’의 다양한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의 교체 양상을 중심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그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본론에서의 주요 논의를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구분	‘-었는’과의 교체 양상	-었-	-는	사용상의 특징
1	‘-은’과만 교체	완료	현재	• 화자의 시점을 현재 발화시로 이동 → ‘현재’ 강조 • ‘-는’의 시제 의미 희석, ‘-었-’의 의미 강화
2	‘-었던’과만 교체	완료	현재	• ‘완료’ 의미 강조 • 화자의 시점을 현재 발화시로 이동 → 강조
3	‘-은’, ‘-었던’과 교체	완료	현재	• 화자의 시점을 현재 발화시로 이동 → 강조 • 화자의 주관적 인식, 일반적인 객관적 인식 반영
4	‘-는’과만 교체	완료	현재	• 과거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 • 사건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보편적인 것임을 반영 •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관계 • 관용적인 덩어리 표현

구분	‘-었는’과의 교체 양상	-었-	-는	사용상의 특징
5	‘-는’, ‘-있던’과 교체	완료	현재	• 화자의 시점을 현재 발화시로 이동 → 현장감, 강조 •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 표현
6	‘-었는’ 유지	완료	현재	• ‘체언+이다’ 구성과 관련 • 화자의 사건 인식이 명확함 • 특정 정보의 강조(양태)

이러한 사용 양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한국어에서의 상과 시제, 양태 등과 같은 문법 범주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 문법에서 결합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 ‘-었-’과 ‘-는’이 결합되면서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시점과 관련된 해석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법적이고 의미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을 제시한 정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앞으로 ‘-었어서’, ‘-졌어서’ 등 ‘-었는’과 유사한 표현과 함께 시간 표현과 관련된 인식의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논저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9.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문법』, (주)두산, 2009.
- _____,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문법』, 두산동아(주), 2010.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권미영, 「경상방언 관형형 ‘-었는’의 기원과 실현 양상 연구」, 『한민족어문학』 76, 한민족어문학회, 2017.
- 김문기, 「매인폴이씨에 나타나는 상과 양태 의미의 상관성」, 『한국민족문화』 30,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 김수정·박덕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과거시제 관형사형 어미 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3-1, 인하대 교육연구소, 2017.
- 김수태, 「‘-다고, -으라고, -자고’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9, 우리말학회, 1999.
- _____, 「‘-아 잇-’의 융합과 ‘-습-’의 기능의미 바뀜」, 『언어과학』 16-3, 한국언어과학회, 2009.
- _____, 「관형사형 어미 ‘-는’에 대하여」, 『언어과학』 23-1, 한국언어과학회, 2016ㄱ.
- _____,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의미와 불명확한 가장자리 현상」, 『언어과학』 23-3, 한국언어과학회, 2016ㄴ.
- 김태우, 「‘-었는’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92, 국어학회, 2019.
- 나찬연, 『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2017.
- _____, 『국어 교사를 위한 고등학교 문법』, 경진출판, 2020.
- 남미정, 「선어말어미 ‘-느-’의 변화」, 『한말연구』 34, 한말연구학회, 2014.
- 문숙영, 『한국어의 시제범주』, 태학사, 2009.
- 박재연,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2006.
- _____,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2009.
- 송원용, 「활용형의 문법적 기능과 심리적 실재성」, 『인문학연구』 31,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2019.

- 안예리, 「‘-었는’의 통시적 연구」, 『형태론』 15-2, 박이정, 2013.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탑출판사, 1998.
이필영,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1993.
임동훈, 「현대국어 어미 ‘느’의 범주와 변화」, 『국어학』 59, 국어학회, 2019.
한동완, 『국어 시제 연구』, 탑출판사, 1996.
홍종선·박주원·백형주·정경재·정연주·정유남, 『국어의 시제, 상, 서법』, 박문사, 2009.

2. 기타 자료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https://dict.naver.com>, 검색일: 2023.01.15.~05.31.)
연세한국어사전(<https://ilis.yonsei.ac.kr/ysdic>, 검색일: 2023.01.15.~05.31.)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3.01.15.~05.31.)

〈Abstract〉

A Study on the Usage Patterns of ‘-eossneun’ through the Corpus in Modern Korean

Kim, Mun-Gi

In this paper, I studied the use of ‘-eossneun’ was analyzed through the data of the ‘21st Century Sejong Plan(2011 revised version)’ in Modern Korean. According to the current Korean grammar, the adnominal ending is responsible for the function of expressing the tense as well as the function of a modification. Therefore, it is ungrammatical to combine ‘-neun’, which is an adjective ending in the present, and ‘-eoss-’ in the past tense(or perfective aspect).

However, from the corpus data, examples of ‘-eossneun’ are extracted, which shows that ‘-eossneun’ is used in real language life.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an explanation of these was necessary, an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se were examined by focusing on the replacement pattern with the adjective ending for the examples in which ‘-eossneun’ was realized. According to this, ‘-eossneun’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ypes. ① Can only be replaced with ‘-eossdeon’, ② Can only be replaced with ‘-eossdeon’, ③ Can be replaced with ‘-eun’ or ‘-eossdeon’, ④ Can be replaced with ‘-neun’, ⑤ There were cases where it could be replaced with ‘-neun’ and ‘-eossdeon’, ⑥ could be maintained with ‘-eossneun’.

And I tried to explain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eossneun’. As a result, in terms of expression, ‘-eossneun’ indicate the meaning of state-durative, or seemed to reflect the intention to express vividly by recognizing past or completed events in the present utterance. In addition, it was identified as showing modality such as emphasis, guess, and recollection of direct experience.

* Key Words: -eossneun, a Pattern of Replacement Pattern, Tense, Aspect, Modality

· 논문투고일: 2023년 6월 9일 ·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11일 · 게재결정일: 2023년 7월 25일
--